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24일

오늘은 교육실습의 마지막 날이었다. 실습 종료 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평가회를 진행하며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는 동료 선생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긴 시간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급 학생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이었다. 학생들이 건넨 많은 선물과 진심 어린 인사 속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정이 쌓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한 달은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에서 선배와 후배로 다시 만나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